

취약점 2년 방치… ‘외부 시스템’ 상시점검, 방어체계 갖춰야

해킹에 뚫린 금융보안

〈中〉 AI기반 공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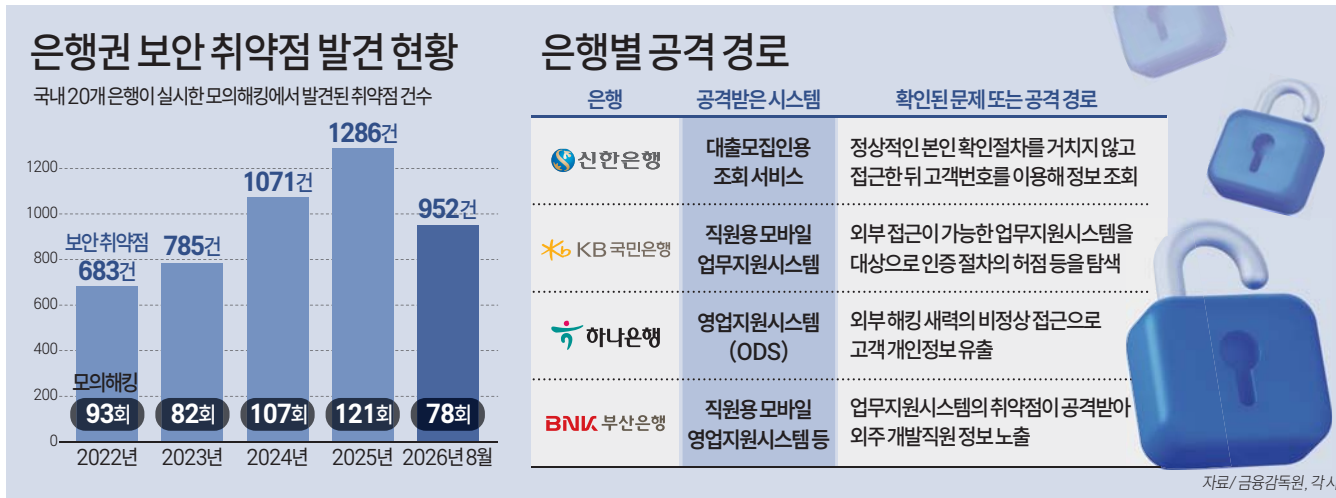
모의해킹으로 취약점 찾아 개선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더 늘려야 ‘핵심 금융’ 높은수준 보안 유지에 외부 연결 시스템 ‘해킹 표적’ 돼

금융사가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모의해킹에서 4777건의 보안취약점을 발견했지만, 이 가운데 109건은 지난 8월말 기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해킹은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공격 기법을 활용해 은행 전산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 내는 작업이다.

◆ 모의해킹 늘었지만…AI 활용은 11.5% 연도별로 보면 은행들은 2022년 93차례



모의해킹을 실시해 683건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후 2023년 82차례에 걸쳐 785건, 2024년 107차례에 걸쳐 1071건, 지난해 121차례에 걸쳐 1286건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올해는 8월까지 78차례 모의해킹을 실시해 952건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미개선 취약점 109건 가운데 106건은 올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건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2건, 1건 발견된 취약점으로, 일부는 발견된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해킹이 실시됐다. 지난 8월까지 진행된 모의해킹 78건 가운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례는 9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해킹은 취약점 탐색과 공격 경로 분석 등 일부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점검 방식과 차이가 있다. 보안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던 반복적인 점검을 자동화해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시험할 수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공격은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하고 여러 공격 경로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 기존의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권 해킹, 외부 연결 시스템 집중
전문가들은 बैं킹 등 핵심 금융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외부 접점이 있는 업무지원시스템까지 동일한 수준의 보안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에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외부와 연결된 조회·업무지원시스템 등이 공격 대상이 됐다.

핵심 시스템에 보안 역량이 우선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 시스템의 보안관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격받은 외부 업무지원시스템이 기존 모의해킹이나 AI 에이전트 활용 모의해킹의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지, 사고 이전에 관련 취약점이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보안원 역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보안원은 앞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융권 공격 사례를 소개하면서 “연 1~2회 진단으로는 잡지 않는다. 상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67개 저축은행 이용, 공동 전산망 장애 발생

저축은행중앙회, 일시적 서비스 중단 회원사에 30분간 뱅킹 중단 공문 발송 전산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우려 확대

최근 전국 67개 저축은행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전산망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침투 시도가 있었던 만큼 정보유출 확산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2일 회원사들에게 전산 오류로 인한 거래 지연 및 복구 관련 전체 공문을 발송했다. 약 30분간 뱅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출금 및 이체 관련 오류가 발생하면서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에서 간헐적으로 응답 시간이 초과되면서 출금·이체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공유하는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달 초 인공지능(AI)

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부 해킹 시도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전산 장애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 공동 전산망이 외부 해킹에 뚫릴 경우 피해가 전국 저축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67곳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자체 전산망을 운영하는 곳은 대형 저축은행 12곳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과장이 저축은행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도 중앙회 전산망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업권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거래량이 폭주하면 기금 렉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출금 이체할 때 튕기는 현상은 모든 시스템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업권에서 외부 해킹

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총 3곳이다. 다만, 3곳 모두 유출 경로는 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전산망이 아닌 외부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웰컴저축은행은 법인가격 시스템에 비인가적 접근으로 법인 고객 정보 약 2299건이 유출됐다. 에기람저축은행은 고객정보가 저장된 외부 시스템이 뚫려 고객 약 5만 명의 정보가 새어 나왔다. OK저축은행도 홈페이지 내 웹페이지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시도를 탐지, 현재 183명의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토스뱅크에서 약 30분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오류는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확인 후 바로 수정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공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카드, 여행·일상 혜택 ‘디오퍼스 블루’

온라인쇼핑·백화점 등 3% 적립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브랜드 ‘디오퍼스(the OPUS)’ 두 번째 작품 ‘디오퍼스 블루(the OPUS blue)’를 내놨다.

디오퍼스 블루는 여행·일상 영역 혜택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렛·쇼핑몰 ▲대형마트 ▲주유 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온라인쇼핑과 백화점 업종을 포함해 적립률을 2%에서 3%로 높였다. 항공, 호텔, 골프장 등 여행·레저 관련 서비스는 월 적립 한도 통합 5만에서 8만 포인트로 상향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팜광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고태연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오른쪽 첫번째)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법인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IBK베트남은행’ 출범… 25일부터 영업

9년 만에 인가 결실 맺어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법인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뒤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25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계 은행 인가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가운데 약 9년간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베트남의 열 번째 외국계 은행 법인으로 출범했다.

IBK베트남은행은 기존 하노이·호치민

지점의 운영 경험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나선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초대 법인장은 “이번 출범은 2008년 호치민 지점 설립 이후 추진해 온 베트남 현지화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소기업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현지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6억 달러 외화 선순위채 발행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총 6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화 선순위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3년 만기와 5년 만기 고정금리채로 구성됐다. 발행금리는 3년물 연 5.25%, 5년물 연 5.50%로 확정됐다. 최초 제시금리 대비 최종 가산금리를 각각 33bp(1bp=0.01%포인트), 30bp 낮췄다.

특히 최종 가산금리 확정 이후에도 발행액의 4.5배에 달하는 27억 달러 규모의 투자 주문이 유지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이번 채

권에 각각 A+와 Aa3 등급을 부여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발행에 앞서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투자설명회(NDR)를 개최했다. 중국 본토 기관투자자들의 주된 참여가 투자 수요 확보와 발행금리 인하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토스뱅크

교육용 노트북 46대 기부

토스뱅크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 46대를 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부된 노트북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이달 중 ‘디지털·AI 문해학습장’ 운영 기관에 전달된다. 해당 기관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인공지능(AI) 및 생활 앱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